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헌신한 삶 되새깁니다

제52회 '광일보훈대상' 영광의 얼굴들

호국 보훈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훈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광주일보사가 제정한 '광일보훈대상'(光日報勳大賞)이 5명의 보훈 가족에게 수여된다.

제52회 '광일보훈대상' 시상식이 26일 오후 2시 광주시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광일보훈대상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한 영령들의 유족과 전·공상 군경의 장한 삶을 되새기는 행사다. 시상식에는 김석기 광주지방보훈청장과 5명의 수상자, 수상자 가족들,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는 조현(공상군경 7급)씨, 최옥란(공상군경 1급 차·60)씨, 한춘선(전물군경유족 자·75)씨, 유소례(전상군경유족 차·92)씨, 남경희(보국수훈자·80)씨 등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상이군경 조현씨 유공자 권익신장·지역사회 발전 기여

조현씨는 1983년 입대해 군 복무 작전 수행 중에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조씨는 절벽으로 낙상해 허리 충격으로 부상을 입고 1985년 의병제대를 해 상이 7급 판정을 받았다. 전역 후 상처로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조씨는

자영업, 보훈단체 활동 등 신체적, 정신적인 역경을 딛고 자립·자활에 성공했다. 조씨는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소년소녀가장 어린이를 초대해 정와대, 비무장지대를 방문했고, 양로원 봉사활동과 무등산 환경정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섰다.

또한 상이군경회 광주시지부 지도부장으로 배우자와 함께 암환우 목욕봉사, 불우이웃 및 고령 회원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조씨는 광주보훈병원 국가유공자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며 국가유공자들을 상담해주고, 매월 회원들과 함께 환우 돌봄봉사, 이동봉사, 식사도우미 등을 하며 국가유공자들의 권익신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중상이군경 배우자 최옥란씨 간호사 그만두고 남편 재활 헌신

최옥란(여·60)씨의 남편 이명근씨는 1988년 군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추락해 전신마비 부상을 입고 1급 공상군경으로 지정됐다. 최씨는 1990년 이씨와 결혼해 2녀의 자녀를 두었으며, 부상 후 삶에 의욕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는 남편을 위해 순천성기물로 병원 간호사를 그만두고 남편을 간호하기 시작했다.

최씨는 광주보훈병원에서 남편의 재활치료를 적극 뒷바라지했다. 전신마비 상태의 80kg의 환자를 여자의 몸으로 간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씨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고, 정신적인 버팀목이 됐다. 그 결과 이씨는 3년간 재활치료를 마치고 장애 인턴구를 시작해 국내 장애인탁구대회에 출전,

국제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최씨는 1991년부터 광주보훈병원에 간호사로 입사해 29년간 근무하며 국가유공자 환자들을 가족처럼 여기며 간호했다. 최씨는 또한 광주보훈병원, 광주보훈요양원 환자를 위한 말벗 봉사, 나들이 봉사, 무의탁 노인과 결식아동을 위한 쌀과 김치 나눔, 유니세프와 월드비전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등 이웃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전물군경 유족 한춘선씨 4살때 부친 잃고 고령회원 위해 봉사

한춘선(여·75)씨는 4살 때 부친을 잃고, 할머니 밑에서 어렵게 성장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한씨는 1984년 보훈청 주선으로 롯데건설(주)에 입사해 34년간 근무해 모범사원상을 수

득해 개가했다. 한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4남 1녀를 훌륭하게 키웠다. 한씨는 1984년 보훈청 주선으로 롯데건설(주)에 입사해 34년간 근무해 모범사원상을 수

상하고 2018년 3월 정년퇴임했다. 한씨는 2019년 8월부터 현재까지 전물군경유족회 광주시지부 남구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매월 현충탑 참배와 현충시설 지킴이 봉사활동에 솔선수범 참여했다. 또 유족회 행사 시 고령·투병회원을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차량 봉사 등 고령회원들을 위한 봉사에도 앞장서고 있다.



전상군경 미망인 유소례씨 미망인회 지회장 맡아 복지증진 기여

유소례(여·92)씨의 남편인 최희복씨는 6사단 중부전선 교암산 전투에서 수류탄이 터져 가슴과 대퇴부 파편 창을 입고 116부대 육군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하고 육군중위를 명예 제대했다.

최씨는 상처의 후유증과 우울증으로 인한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1979년 사망했다. 유씨는 혼자 2남 3녀를 키우기 위해 광주로 이사와 행상에서 채소를 팔고, 식당일, 청소 등 생의를 다해 자녀들을 뒷바라지했다.

유씨는 1984년부터 1988년까지 미망인회 동구분회장, 1988년부터 1993년까지 동구 지회장을 역임해 회원들의 손과 발이 돼주고 청소와 말벗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 회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했다. 현재 유씨는 광주공원 현충탑 참배 및 주변 정화활동 등 지회 행사에 앞장서고 있다.



특별부문 남경희씨 33년 장병 육성 헌신...꾸준한 봉사활동

남경희(80)씨는 1967년 육군에 입대해 육군 2사단과 3군단 근무, 육군 교육사령부에서 장병 육성에 헌신을 다하는 등 33년의 군 복무 수행 공로로 보국훈장 광복장을 받았다. 남씨는 2001년 무공수훈자회 광주시지부 서구

지회에 가입해 지회 자문위원에 이어 2021년 광주지부 자문위원 및 국가유공자 장례의전 선양위원으로 활동했다. 2001년 경로당을 방문해 선후배 전우들과 교감을 나누고, 병원 입원 회원들을 위로하는 등의 유

공으로 광주지방보훈청장·육군 31사단장 표창을 받았다. 남씨는 2022년 9월부터 서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관계자와 협조해 '매 분기 노령회원(유족) 건강검진 날'을 운영해 건강 관리에 기여했다. 또 지난해 매월 회원 30여명과 사직공원 '호국 무공수훈자 전공비'를 참배하고 공원 환경정화 활동을 선도하고 있다.



'장마 주춤' 광주·전남 당분간 무더위

장맛비가 그친 광주·전남에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는 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장마전선이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오는 27일까지 흐리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기온은 평년(최저 18~20도, 최고 25~2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아침최저기온은 18~20도, 낮최고기온은 27~30도로 예보됐으며, 27일에는 아침최저기온이 18~21도, 낮최고기온이 28~32도까지 오를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돼 습도가 높아져 최고체감온도는 31도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

28일부터는 서해중부해상에 자리잡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 새벽 0시부터 밤 9시 사이 광주·전남에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동아시아 쌀문화 페스타 열린다

전남도농업박물관, 27일부터 공연·체험 등

'동아시아 쌀문화 페스타'가 오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남도농업박물관에서 열린다.

페스타 행사는 쌀 문화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문화적 연대·농업의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것으로, 기간 내 공연·전시·미디어아트와 체험 행사 등도 마련된다.

개막식이 열리는 27일에는 행사 시작을 알리는 퍼포먼스·'남도전지밥' 공연이 열린다. 이외 행사 기간 '동아시아의 미(米), 쌀 문화' 주제 특별전도 준비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소장한 일본, 미얀마, 인도네시아 국가 농경 유물 30여 점이 함께 선보인다. 지역 미디어아티스트인 박상화 작가가 일제강점기 시대 전통 모내기 등이 담긴 옛 엽서 이미지를 미디어아트 영상과 빛, 사운드 등을 활용해 현대적으로 풀어낸 미디어아트도 선보인다. 동아시아 지역 쌀 중심의 생활양식을 함께 체험하고 감상할 '다문화 꾸러미'는 상설 전시한다.

쌀 주제 관련 전문 강좌도 7월 30일부터 매달 한차례 '문화가 있는 날'인 마지막 주 수요일 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진행된다.

페스타 기간 박물관 야외 공간과 쌀 박물관에서는 동아시아의 전통 의상, 놀이, 음식 체험 부스가 운영돼 가족 단위 관람객이 동아시아 각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전남 각 시군의 브랜드 쌀과 가공식품을 소개·판매하는 부스도 상설 운영된다.

'전국 청년 쌀 요리 경연대회'(9월 26~27일)도 펼쳐진다. '동아시아 쌀문화 페스타'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급성 심근경색 사망률 소득 따라 달라

급성 심근경색을 앓은 후 사망할 확률이 직장 여부와 소득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사망률이 직장가입자보다 높았고, 지역가입자 중에서는 저소득자의 사망률이 높았다.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강희택 교수와 중앙대병원 순환기내과 원호연 교수 공동연구팀은 건보 가입자 유형에 따른 급성 심근경색 진단 후 사망률을 비교·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팀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2007년부터 1년간 급성 심근경색을 진단받은 3만 1938명 중 연구에 적합한 5971명을 추린 뒤, 이들을 직장가입자(4329명)와 지역가입자(1642명)로 나눴다. 이후 소득 수준을 상·중·하로 재분류해 사망률 차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추적 기간 13.5년간 급성 심근경색을 앓은 지역가입자의 사망률은 직장가입자의 1.11배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가장 적은 집단의 사망률은 이보다 소득이 높은 집단(중·상)의 1.34배였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